

日韓印刷文化シンポジウム—IGAS2011 開催記念—

主催；国際印刷大学校 後援；日韓文化交流基金

古代から日本と朝鮮半島との印刷及び関連分野の交流があり、世界最古の印刷物として韓国の「無垢浄光大陀羅尼経」（751年）がある。日本では法隆寺に現存する「百万塔陀羅尼経」（770年）は韓国、中国の影響を受けたものとも推定されている。金属活字による印刷物「白雲和尚直指心体要節」（韓国では**直指**という）（1377年）は現存する最古の印刷物で、「グーテンベルグの42行聖書」（1447年）よりも古く、金属活字による印刷技術は東洋からヨーロッパに伝播したものとして、内外の研究者により、多数の研究が進められた。この直指は2001年にユネスコのMemory of the Worldに認定された。2011年6月Seoul Book Fairでも、**直指の展示**が行なわれ、多くの若者が参加していた。

韓国の伽耶山にある海印寺には八万大蔵経（1251年）が所蔵されていて八万枚以上の木版が保管されている。グーテンベルグの印刷技術はイギリスのカクストン、ベルギーのプラントン家によりヨーロッパ全土に普及するにいたり、宗教や産業革命の基盤をなした。一方、日本ではグーテンベルグの印刷技術が天正少年使節団により、1591年熊本の本天草に伝来し、印刷機械と活字一式から、天草学林で使用した多くの教材を多数印刷した。明治の初期、本木昌造による活字制作と印刷は日本の印刷文化の発展をもたらした。毎年9月3日長崎市の大光寺で**本木昌造顕彰会**の主催で法要がいとなまれている。**本年の136回忌は9月2日（金）に大光寺で行われる。**

世界的にはアジアを中心として、印刷出荷額は増大傾向にあり、新しい知識社会における文化の多様性から電子書籍の拡大などでスマートフォンのメディア文化が生まれる可能性もあろう。近年の日韓文化は衣食住に関する生活文化と漫画・アニメなどの商品文化があり、「韓流」により、日本文化に大きな影響を与え、印刷分野にも波及効果を及ぼしている。印刷産業は内需中心から積極的に外需も受注可能なビジネスモデルが必要となる。

IGAS2011期間中の9月17日の午後に日韓文化交流基金の後援のもと「**日韓印刷文化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印刷文化の発展が印刷産業の進展を計る重要なキーポイントになる趣旨をまとめ、日韓印刷文化の拠点構想を内外に広くアピールし、若者のための日韓グローバル人材の育成など、このシンポジウムで展開します。

記

期日；2011年9月17日（土）14時～16時、会費；無料（要旨、日韓通訳付き）

場所；東京ビッグサイトTFTビル9階研修室910 www.tokyo-bigsight.co.jp/tft/

講師；斗山東亜(株)常務 李在錫氏、全印工連会長 水上光啓氏

司会；国際印刷大学校 木下堯博 **申込み；下記メールアドレスまで**

詳細は www.media-igu.com ；連絡先 kinoaki@mpd.biglobe.ne.jp

事務局〒189-0002 東京都東村山市青葉町 2-29-12 電話 070-5694-0174

(2011年7月4日記)

한일 인쇄 문화 심포지엄 -IGAS2011 개최 기념-

주최 : 국제인쇄대학교 후원 : 일한문화교류기금

고대로부터 일본과 한반도는 인쇄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교류가 있었으며, 한국에는 세계 최고(最古)의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無垢淨光大陀羅尼經)](751년)이 있다. 호류지(法隆寺, 법륭사)에 현존하는 [백만탑다라니경 (百萬塔陀羅尼經)](770년)은 한국,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속활자에 따른 인쇄물 [직지심체요절 (直指心體要節)](직지(直指))(1377년)은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구텐베르그의 42행 성경](1447년)보다 앞섰는데, 금속활자 인쇄기술에 대한 수많은 연구는 동양에서 유럽으로 전파된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2001년에 유네스코 Memory of the World에 인정되면서 2011년 6월 서울도서전에 직지를 전시, 많은 젊은이들이 관람했다. 또한 해인사(海印寺)에 보관된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1251년)은 8만장 이상의 목판이다. 구텐베르그의 인쇄기술은 영국의 caxton, 벨기에의 Plantin 가문에 의해 유럽 전지역에 보급되었고 종교와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뤘다.

한편, 일본에서는 구텐베르그의 인쇄 기술이 덴쇼우소년사절단(天正少年使節團)에 의해 1591년 아마쿠사에 전래되어 인쇄 기계와 활자 일식으로 아마쿠사 collegio (天草學林)에서 사용된 수많은 교재를 다수 인쇄했다.

메이지 시대 초기 모토기 쇼조(本木昌造)가 활자 제작과 인쇄를 통하여 일본 인쇄 문화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매년 모토기쇼조 표창회 주최로 법요를 치르고 있다. 올해 치러지는 136회기는 9월 2일(금)에 나가사키시 다이코지(大光寺)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쇄 출고액은 증대하는 경향이며 새로운 지식 사회의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서적 확대 등으로 스마트폰 미디어 문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년의 한일 문화는 의식주에 관한 생활 문화와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상품 문화, '한류' 등으로 일본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쳐 이것이 인쇄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인쇄 산업은 내수(內需)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외수(外需)도 수주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IGAS2011 기간 중 [한일 인쇄 문화 심포지엄]에서는 인쇄 문화 발전이 인쇄 산업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정리하여 한일 인쇄 문화 거점 구상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한일 양국의 차세대를 짊어질 글로벌 인재 육성 등을 이번 심포지엄의 지침으로 삼으려 한다.

記

기일 : 2011년 9월 17일(토) 14:00 - 16:00

회비 : 무료 (요지, 통역 포함)

장소 : 도쿄 빅사이트 TFT 빌딩 9층 연수실 910 (www.tokyo-bigsight.co.jp/tft/)

강사 : 두산동아(주) 상무 이재석 (예정), 전인공련 회장 미즈가미 미츠히로

사회 : 국제인쇄대학교 기노시타 아키히로

신청 :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media-igu.com

연락처 : kinoaki@mpd.biglobe.ne.jp

사무국 : 〒189-0002 東京都東村山市青葉町 2-29-12 電話 070-5694-0174

(2011년 7월 4일)